

경북도서관 특화장서 개발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y for Developing Specialized Collections of Gyeongbuk Library

윤희윤 (Hee-Yoon Yoon)*

오선경 (Seon-Kyung Oh)**

초 록

대다수 국가에서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정보 허브, 복합문화공간, 만남과 소통을 위한 제3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업무 중에서 요체는 체계적인 장서개발이고, 구축된 장서는 모든 지식정보서비스에 필수적이다. 특히 지역대표도서관은 광역자치단체를 위한 종합지식정보센터로서의 법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른 공공도서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특화장서를 개발·제공·보존해야 한다. 이에 외국의 대규모 공공도서관과 국내 지역대표도서관의 특화장서 개발 사례를 조사하고 경북지역 공공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특화장서 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으며, 경북의 문화지형을 분석하였다. 이들을 배경정보로 삼아 '경북지식문화유산'으로 명명한 경북도서관의 특화장서 개발방안 및 구축전략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n most countries, public libraries play a role as a knowledge and information hub for local communities, a complex cultural space, and a third place for meetings and communication. Among the work of public libraries for this purpose, the key point is systematic collection development, and the established collection is essential for all knowledge and information services. In particular, local representative libraries must perform legal duties as a comprehensive knowledge information center for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develop, preserve, and service specialized collections that are difficult for other public libraries. Therefore, we analyzed the development cases of specialized collections of public libraries in large cities in foreign countries and local representative libraries in Korea, surveyed the degree of awareness of specialized collections for employees of public libraries and the cultural to geography in Gyeongbuk region. Based on the background information, this study proposed the development plan and establishment strategy of the Gyeongbuk Library specialized collection, which was named "Gyeongbuk Knowledge and Cultural Heritage."

키워드: 경북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특화장서, 장서개발, 경북지식문화유산
Gyeongbuk library, regional representative library, public library, specialized collection, collection development, Gyeongbuk knowledge and cultural heritage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제1저자)

**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oskpro@joongb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1년 2월 25일 ■ 최초심사일자: 2021년 3월 10일 ■ 게재확정일자: 2021년 3월 23일

■ 정보관리학회지, 38(1), 143-168, 2021. <http://dx.doi.org/10.3743/KOSIM.2021.38.1.143>

※ Copyright © 2021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사회에는 많은 종류의 문화시설이 존재한다. 이들에 대한 최상위 법적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이며, 동법 시행령 별표 1은 문화시설의 종류를 공연장 등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 문학관,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과 문화의 집, 기타 공연·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각은 고유한 역사성, 본질적 정체성, 상이한 사회적 역할을 기반으로 공존하면서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문화시설 중에서 「도서관법」 제22조에 근거한 지역대표도서관과 제27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은 자료의 수집·보존·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이용, 조사·연구, 문화향유, 평생학습 등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자료는 도서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인자인 동시에 대표하는 브랜드다. 자료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체계적으로 보존되면 장서로 발전하고 도서관은 지적 놀이터가 된다. 해서 도서관은 자료의 통시적 누적과 체계적 보존을 전제로 지적 질서화를 중시하는 장서 중심의 시설과 공간이다.

그 가운데 지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3조의 법정 업무(시·도의 종합적 자료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각종 도서관 지원·협력, 도서관업무 조사·연구, 이관자료 보존,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 및 협력사업 등 지원, 기타)를 수행하여 종합지식정보센터, 정책도서관, 지원협력 및 조사·연구센터, 공동보존서

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특히 시·도를 아우르는 행정자료, 지역학자료, 향토자료, 인물자료, 문화유산자료 등 특수 및 특화자료의 통시적 개발과 보존은 법정기구인 지역대표도서관이 주력해야 할 책무이자 몫이다. 세월을 두고 숙성된 지적 질서는 지식문화유산으로 격상되고 지역단위 종합지식정보센터로서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한다. 그럼에도 시도별 대표도서관 중 특화장서 개발은 부실하고 학술적 연구도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외 대규모 공공도서관과 국내 지역대표도서관의 특화장서 개발사례를 분석하고, 경북지역 공공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인 경북도서관의 정체성과 역할, 법정업무의 중요성과 중점 추진업무, 대표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역할 비중, 인지도 제고방안, 특화장서 개발대상 자료 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다. 그 결과를 배경정보로 삼아 특화장서 브랜드를 결정하고 경북의 정체성 및 정신이 집적되어 있는 문화권과 문화유산을 분석하여 경북도서관의 특화장서 개발방안과 구축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부연하면 경북도서관이 옹도 경북의 종합지식정보센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특화장서의 전략적 개발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는 사례분석, 설문조사, 문화지형 분석을 적용한다.

첫째, 사례분석은 장서개발정책 내의 특화장서 브랜드 및 내용이 있는 주요 선진국(미국, 독일, 호주, 일본, 대만)의 대규모 공공도서관

과 국내 15개 지역대표도서관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설문조사는 경북지역의 모든 공공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인 경북도서관의 정체성과 역할, 중점 추진업무, 지역대표도서관과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비중, 인지도 제고방안, 특화장서 개발대상 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다.

셋째, 문화지형 분석은 경북의 4대 정신(화랑정신, 선비정신, 호국정신, 새마을정신)의 흔적과 기억이 집적되어 있는 3대 문화권(유교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의 유네스코 한국문화유산, 시군별 문화재, 안동·경주 중심의 종가문화, 항일투쟁·독립운동, 울릉도·독도, 새마을운동 등을 분석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연구대상을 경북도서관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고 항일·독립운동의 본거지이자 종가문화 고향이며, 새마을운동 발상지이자 역사지리상 중요한 울릉도와 독도를 배후로 하여 다른 시도 보다 특화장서 개발과 구축이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외 사례분석을 미국, 독일, 호주, 일본, 대만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대륙별로 장서개발정책 내에 특화장서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였기 때문이다.

1.3 선행연구 개관

국내외에서 공공도서관의 특화장서 개발 및 서비스에 대한 사례 연구는 다수 있지만, 지역대표도서관이나 그 역할을 하는 주립 및 도도부현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2010년 이후에 공공도서관 특화장서와 관

련한 연구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외 사례로 Bottorff(2011)는 전문화된 주제 컬렉션을 구축하기 위한 팁을 제시하였는데 좋은 전문 컬렉션 제작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전한 예산과 유연한 기술 서비스 부서가 필요하고 다른 부서의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정기적으로 연례보고서나 기타 문서에서 컬렉션의 상태를 강조하고 이용자 조사를 하며 동료기관이나 유사한 컬렉션과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영역이나 프로그램 등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中井えり子(2015, pp. 8-10)는 국립국회도서관의 「전국특수장서요람」과 「일본대학특수문고해제목록」을 분석한 후 나고야 대학 중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서양고전 특수장서(특정 주제나 자료의 군집, 역사적 인물이나 유명 인사의 문고)를 분석하고 보완, 관리, 이용 측면에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의 경우, 공공도서관 특화장서 관련 연구로 박현주(2012)는 인천 화도진도서관 향토개항문화자료관을 중심으로 향토개항자료의 장서특성화 현황과 추진 실적을 분석하여 장서특성화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영희, 강정아(2014)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설문 및 면담 조사를 통하여 향토문화콘텐츠 발굴시 중점사항, 구축 및 서비스 방안, 도서관 협력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제공방안을 제안하였다. 반달림, 오동근(2015)은 대구지역 8개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장서 서비스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홍보 부족, 담당 사서의 업무 부담, 특성화장서에 대한 장서개발정책 미흡 등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장덕현(2020)은 지역특성화장서를 구축하고 있는 주요 공공도

서관의 사례를 분석하고 7개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여 규모와 현황 조사 및 사서 면담을 진행하여 지역특성화장서 구축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최근 윤희윤, 김종애, 오선경(2020)은 주요 선진국의 대도시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정책과 국내의 권역별 지역대표도서관 장서개발지침(안) 및 규정을 분석하였는데, 대다수 선진국의 정책은 구성체계 및 내용적 측면에서 충실한 반면에 국내는 공식화된 정책문서가 없는 실무지침에 불과하였다. 이에 모든 지역대표도서관은 장서개발의 중요성 인식, 미래지향적 사고, 전략적 판단 등을 전제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문서화해야 함을 주장하며, 이를 위한 기본원칙과 구성체계에 특화장서를 포함하였다. 그럼에도 사례분석, 설문조사, 문화지형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지역대표도서관 특화장서 모형을 개발·제안한 연구는 전혀 없다.

2. 국내외 대규모 공공도서관 특화장서 사례 분석

2.1 외국의 주립 및 대도시 공공도서관

주요 국가의 대규모 공공도서관, 대도시 공공도서관, 주립 및 도도부현 도서관을 대상으로 예비조사한 결과, 장서개발정책에 특화장서를 반영한 사례는 미국(뉴욕, 버지니아주립, 보스톤), 독일(베를린주립), 호주(퀸즐랜드주립), 일본(도쿄도립, 교토부립, 홋카이도도립, 가나가와현립), 대만(타이베이시립, 가오슝시립) 등이 있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특화장서를 분석

하면 다음과 같다.

2.1.1 미국의 대도시 도서관

먼저 뉴욕공공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의 특화장서는 초상화 파일(Portrait File), Schlosser Collection, Spencer Collection 등이다. 초상화 파일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정기간행물에서 잘라낸 이미지이고 원본 목판화, 판화, 에칭 및 석판화도 포함한다. 16-19세기를 강조한 국제 정치, 종교, 문화, 문학, 예술적 인물의 초상화도 제공한다. 제지술 역사에 관한 Schlosser Collection은 770년-현재까지 약 3,000권의 도서, 그림, 기타 자료로 구성되어 온라인 목록에 분류되어 있으며 Prints and Photographs Study Room에서 제공한다. Spencer Collection은 중세 필사본, 일본 두루마리, 인도 미니어처부터 르네상스 인쇄물, 삽화 및 현대 미술가에 대한 제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와 국가 및 문화의 삽화와 책 제본에 관한 것이다(New York Public Library, 2021).

다음으로 버지니아 주립도서관(The Library of Virginia)은 총 6개 영역(목적, 장서접근, 장서범위, 자료선정, 장서개발 및 관리, 부록)으로 구성된 장서개발 및 장서관리지침(Collection Development and Collection Management Guidelines)에서 특화장서를 확인할 수 있다(The Library of Virginia, 2007). 사명에 버지니아주의 문화 및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여 버지니아주에 관한 가장 망라적인 정보원 접근을 제공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장서개발 및 관리에 공공기록물, 필사자료, 버지니아주 관련 기록물을 수집 및 제공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버지니아 관련 지도와 신문·정기간행물,

주(州) 정부를 위한 참고장서, 버지니아주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사진, 초상화, 포스터, 종이에 그린 미술작품 및 단명자료와 같은 그래픽 자료를 수집·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스톤 공공도서관(Boston Public Library)은 총 11개 영역(목적 및 배경, 장서 책임, 수집 기준, 세계 언어, 장서 디지털화, 저명한 장서(Collection of Distinction), 연구·특수자료, 제적과 장서보존, 기증, 지적 자유, 부록)으로 구성된 장서개발정책(Collection Development Policy)이 있다(Boston Public Library, 2013). 수집기준에 특수장서 기준을 탁월한 장서로서의 적합성, 특별한 처리·보존이 필요한 자료로 설정하였고 연구 및 특수장서의 수집범위와 수집방법도 제시하였는데 미국연방출판물을 보존하고 Norman B. Leventhal Map Center와의 협약을 통해 도서관 및 보스톤 재단장서의 보존, 목록, 디지털 스캔·축적 및 제공을 규정하였다. 부록에는 특수장서위원회 책무, 특수장서의 구입에 의한 수집·처분과정, 지도(map)센터 수집정책 및 권한 등을 명시하였다.

2.1.2 독일과 호주의 주립도서관

먼저 독일 수도에 위치하는 베를린주립도서관(Staatsbibliothek zu Berlin)은 총 5개 영역(일반원칙, 주제 프로파일, 역사적 자료의 수집 원칙, 특수장서, 정보자료)으로 구성된 장서구축원칙(Grundsätze des Bestandsaufbaus)이 있다(Staatsbibliothek zu Berlin, 2019). 역사적 자료의 수집원칙에 베를린을 포함한 전국적, 국제적 수준의 주요 역사자료 수집에 대한 일반원칙과 Rarasammlung 수집원칙을 규정하였고 특수장서에 필사본부서 컬렉션, 음악도서

관, 지도부서 컬렉션, 동유럽 컬렉션, 동양 컬렉션, 동아시아 컬렉션, 공식간행물, 신문, 어린이 및 청소년 도서를 포함한 특수장서의 수집범위, 선택기준, 중점 분야, 자료유형, 지역 및 언어 측면을 기술하였다. 특히 라라열람식 컬렉션(Rarasammlung)은 17-18세기 희귀하고 귀중한 인쇄물, 18세기 함부르크 및 안토나 인쇄물, 18-19세기 귀중한 삽화 인쇄물 및 희귀한 복사본을 포함한다. 또한 베를린주의 역사자료로서 1501-1955년의 장정과 표지가 역사·예술적 자료 265,000권 소장되어 있다.

다음으로 호주의 퀸즐랜드 주립도서관(State Library of Queensland)은 총 7개 영역(서론, 정책 프레임워크, 일반적 원칙 및 우선순위, 헤리티지(heritage) 컬렉션, 주립참고도서관-주제 개요, 공공도서관 서비스 및 장서, 부록)으로 구성된 장서개발정책(Collection Development Policy)이 있다(State Library of Queensland, 2007). 헤리티지 컬렉션에 John Oxley Library, Australian Library of Art, The Map Collection을 규정하였고 호주 문학 컬렉션, 극북(Far North) 퀸즐랜드 컬렉션, 호주 및 토러스해협의 원주민 문화·역사자료, 희귀도서, 지도 등도 명시하였다.

2.1.3 일본의 도도부현립도서관

먼저 도쿄도립도서관(東京都立図書館)은 총 4개 영역(목적, 정보서비스 자료수집, 보완서비스용 자료수집, 용어 해설)으로 구성된 자료수집방침(資料收集方針)이 있다(東京都立図書館, 2009). 자료별 일반방침에 도쿄자료에서 도쿄에 관한 조사·연구에 도움이 되는 도쿄도가 발행한 행정자료, 도내 시정촌 및 민간 발간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도록 하였다. 특별문고(15개)에는 근세-명치 초기 간본, 고지도, 한적 등 특별문고실 자료(대정천황 즉위 때 도쿄에 하사한 10만 엔으로 수집한 도쿄사료), 2차 세계대전 중 도쿄 민간학자 및 장서가로부터의 전시(戰時) 특별매입도서, 기탁·기증도서 등이 있다. 도시·도쿄의 기억(Tokyo Archive)은 도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도쿄 관련 자료로 명치기에 도쿄부 및 도쿄시에서 발행한 도쿄 관련 자료이다.

다음으로 교토부립도서관(京都市立図書館)은 총 5개 영역(기본방침, 수집자료, 수집방법, 수집 협의, 구체적 선정기준)으로 구성된 자료수집방침(資料收集方針)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자료수집기준을 마련하였다(京都市立圖書館, 2016). 교토 관련 자료의 수집기준과 범위를 규정하였는데 부립 교토학·歷彩館(Library and Archives) 소장의 고문서, 행정문서, 고전을 제외한 시판자료(도서 및 문서 각 39만 점, 현물자료 5만 점), 교토와 밀접한 인물, 단체 또는 교토를 주제로 기술한 자료·관광 가이드북, 상기 기준에 부합하는 시리즈물 등 일반도서(교토 관계 자료는 복본 구입), 교토 관련 잡지, 일반지, 전문지, 외국어 잡지, 신문 등이다.

그리고 홋카이도도립도서관(北海道立圖書館)은 총 11개 영역(목적, 기본방침, 수집자료의 종류, 요청자료, 자료수집방법, 수집부수, 자료의 보존, 자료센터로서의 역할, 자료수집의 조직, 개정, 자료수집계획)으로 구성된 자료수집방침(資料收集方針)이 있으며(北海道立図書館, 2016), 북방자료(북해도 및 사할린(樺太)·쿠릴(千島) 등 북방지역에 관한 도서, 연속간행물, 시청각, 사진, 소책자, 정치화상자

료, 지도, 행정자료 등)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복본 수집도 가능하게 하였다. 원칙적으로 북방자료는 영구 보존하고 원본 보존이 곤란할 경우는 복사나 디지털화 등 매체변환을 수행한다. 북방자료실(2020년 도서관 부지 내의 북해도립공문서관으로 이전)을 설치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나가와현립도서관(神奈川県立図書館)은 총 16개 영역으로 구성된 가나가와현립도서관자료수집요강(神奈川県立図書館資料收集要綱)이 있다(神奈川県立図書館, 2014). 이 요강에서는 특수장서의 범위를 일본 근대 이후의 베스트셀러(최근 것은 연간 상위 20위까지), 니노미야(二宮尊徳) 중심의 보덕사상(報徳思想) 관계 도서, 전국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편집·간행한 역사자료, 도서관 및 도서관학 관계 자료로 설정하고 집중 수집하도록 명시하였다.

2.1.4 대만의 대도시 도서관

타이완 수도의 타이베이시립도서관(臺北市立圖書館)은 총 9개 영역(도서관 소개, 장서개황, 장서발전원칙, 자료선택, 자료수집, 장서유지·보호, 기대목표, 정책 제정·수정, 부록)으로 구성된 관장발전정책(館藏發展政策)이 있다(臺北市立圖書館, 2019). 특화장서 개발에 관한 사항은 일본 고서, 아시아개발은행자료, 정부간행물, 공공도서관 공유 디지털자료 등이다.

타이완에서 세 번째 대도시에 위치하는 가오슝시립도서관(高雄市立圖書館)은 총 8개 영역(서문, 도서관 소개, 장서현황, 장서발전 중점, 자료선정, 자료수집, 장서평가 및 유지관계,

정책의 제정·수정)으로 구성된 관장발전정책(館藏發展政策)이 있다(高雄市立圖書館, 2016). 장서발전 중점 부분에서 지역사회 특성, 대중 또는 민간단체 건의, 장서 분산보존 등을 기준으로 59개 분관 중 57개관의 특화장서 구축하였는데, 高雄文學館: 高雄作家, 旗山分館: 地方文獻·建築景觀, 橋頭分館: 地方鄉土文化·臺灣民主發展, 鹽埕分館·澄觀分館: 漫畫, 翠屏分館: 飲食文化, 大樹三館: 農業, 梓官分館: 海洋文學 등이 대표적이다.

2.2 국내의 지역대표도서관

2021년 1월 말 현재 시도에서 설립 또는 지정·운영되고 있는 15개 지역대표도서관 가운데 특화장서 개발사제가 있는 8개 관을 수도권(서울, 미추홀), 충청·호남권(충남, 광주시립), 영남권(대구시립중앙, 경북, 부산, 울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2.1 수도권

먼저 서울도서관은 아직 공식화된 장서개발 정책이 없다. 그 대신에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 내에 총 14조, 별표 3개(자료선정기준, 기증자료 처리기준, 폐기·제적기준)로 구성된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서울도서관, 2017). 특화장서 개발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일반적 선정기준 사항에서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 기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 국내외에서 발간된 서울시에 관한 자료의 최우선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자료(행정자료)는 115,980건이며, 3층 서울자료실과 서울기록문

화관에서 제공한다.

다음으로 인천시 미추홀도서관도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은 없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2016년 총 6장(개요, 지역사회 및 이용자 분석, 장서개발 기준 및 장서확충 목표, 주제별 집서수준, 장서개발 세부지침, 자료보존·관리·제적·폐기 세부지침)으로 구성된 『장서개발정책(안)』을 수립하였다(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2016). 특화장서 개발에 관한 사항은 인천에 관한 모든 자료 및 인천에서 출판되는 단행본, 간행물, 시청각자료, 민속자료, 고문서를 비롯 인천소재 기업체 및 단체 간행자료, 인천 출신이거나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의 자료 등을 망라적으로 수집하되 복권 수집원칙 예외를 적용하여 4권 이내로 수집하도록 명시하였다.

2.2.2 충남·호남권

먼저 2018년 4월에 개관한 충남도서관도 장서개발정책 문서가 없지만 실무에 적용하는 총 9장(개요, 목적 및 필요성, 봉사대상 현황, 장서개발 기준 및 목표, 자료관리, 장서구성, 장서평가, 장서폐기, 갱신주기)으로 구성된 ‘충남도서관 장서개발 지침(안)’이 있다(충남도서관, 2018). 장서구성에 특화자료 선정사항을 제시하였는데, 백제학 자료와 도내 발간자료, 충남 및 시군에 관한 충청학 자료의 수집·관리를 명시하였다. 특화자료는 2020년 5월 말을 기준으로 충청학 3,952권, 행정자료 1,385권, 백제학 773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성화자료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무등, 사직, 산수로 구성된 광주시립도서관을 대표하는 무등도서관도 2019년에 총 7장(목적, 봉사대상 분석, 장서개발 지침결

정, 자료선정 기준, 자료관리, 장서평가, 장서폐기)으로 구성된 '장서개발지침'을 수립하였다(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 2019). 특화장서 개발의 경우, 무등도서관은 광주·전남·전북지역의 역사(시·군지), 문화, 전설, 지도, 관광, 문화재, 지역 축제 등 지역향토자료를, 사직도서관은 시문학 자료를, 산수도서관은 미술자료를 수집하도록 명시하였다.

2.2.3 영남권

먼저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은 공식화된 장서개발정책은 없으나 2019년 총 8장(개요, 목적, 지역사회 현황, 장서구성 기준, 장서선정, 장서관리, 장서평가, 장서 제적 및 폐기)으로 구성된 '중장기 장서개발계획(2019-2023)'(대구시립중앙도서관, 2019)을 마련하여, 낙육재고서 및 국제정보센터 외국도서(양서, 일서, 다문화도서) 등 특색자료를 수집하도록 명시하였다. 고서는 1910년 이전에 간행 또는 필사된 자료, 대구·경북 역사 및 향토자료, 대구·경북 출신 작가 문집 등, 일서는 일제치하 한국 역사 및 향토 관련 자료, 대구·경북 문인 및 작품이 수록된 자료 등, 중국서는 한국 역사 및 향토 관련 귀중서, 역사적 사료 가치가 있는 도서 등을 수집하도록 하였다.

2019년 11월 개관한 경북도서관도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은 없다. 그 대신 총 17조, 별표 3개(자료 선정기준, 자료기증 처리기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로 구성된 「경북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경북도서관, 2019) 별표 1의 자료의 일반적 선정기준에서 경상북도 및 각 시군, 기타 경상북도 소재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와 국내외에서 발간된 경상북도

에 관한 자료는 최우선으로 입수하도록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2020년 11월에 개관한 부산도서관도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은 없으나 그 대신 총 12조, 별표 2개(부산도서관 자료선정 기준, 자료 폐기·제적 기준)로 구성된 「부산도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부산도서관, 2020) 별표 1의 자료의 일반적 선정기준에서 부산학 자료는 부산의 현재와 역사에 대한 자료, 부산 지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료, 타지역·국외에서 발간된 부산 관련 자료, 외국 거주 부산 출신 작가 작품 등을 우선 선정하도록 명시하였다.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산도서관은 4,201권이요 부산애(愛)뜰 자료실에서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2018년 4월 개관한 울산도서관 역시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은 없다. 총 17조, 별표 2개(자료선정기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로 구성된 「울산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일반적 선정기준 사항에서 울산광역시와 각 기초자치단체, 기타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와 국내외에서 발간된 울산에 관한 자료는 최우선으로 입수하도록 명시하였다(울산도서관, 2018). 2021년 1월 말 기준으로 울산학 자료는 4,244권으로 종합자료실 내 울산지역자료 코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제공·보존하고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국외 주요 공공도서관과 국내 지역대표도서관 특화장서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특화장서 개발은 대도시, 도도부현, 시도를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이 추진해야 할 책무인 동시에 비교우위 내지의 강점을 드러내는 전략적 메뉴다. 그럼에도 외국 사례와 달리 국내

〈표 1〉 국내외 대규모 공공도서관의 특화장서 개발 사례 비교

| 구분 | 도서관 | 정책문서 | 특화장서의 주요 내용 | |
|-------------|------------|--|--|--|
| 미국 | 뉴욕공공(NYP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상화 파일(The Portrait File) • Schlosser Collection: 770년-현재의 제지술 역사에 관한 도서, 그림, 기타 자료 약 3천 권) • 스펜서 컬렉션(Spencer Collection): 중세에서 근대 르네상스 인쇄운동까지 필사본, 일본 두루마리, 인도 미니어처 등 | |
| | 버지니아주립(LV)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지니아주 역사자료: 주 역사·문화사진, 초상화, 포스터, 종이미술품, 그래픽자료 | |
| | 보스턴(BP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장서위원회 구성, 특수장서 기준 설정(탁월한 장서로서의 적합성, 특별한 처리·보존이 필요한 자료) • 미국연방출판물 보존 • Norman B. Leventhal Map Center와의 협약을 통한 도서관 및 보스턴 재단장서의 보존, 목록, 디지털 스캔·축적 및 제공 | |
| | 독일 | 베를린주립(SB)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라열람실 컬렉션(Rarasammlung): 베를린 주의 역사자료로서 1501-1955년의 장정과 표지가 역사·예술적 자료 265,000권 소장 |
| | 호주 | 퀸즐랜드주립(SLQ)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ohn Oxley library, Australian Library of Art, The Map Collection • 호주문학 컬렉션 • 극북(Far North) 퀸즐랜드 컬렉션, 호주 및 토러스해협의 원주민 문화·역사 자료, 회귀도서, 지도 등 |
| | 외국 | 도쿄도립(東京都立)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자료: 도쿄도가 발행한 행정자료, 도내 시정촌 및 민간 발간자료 • 특별문고(15개): 근세-명치 초기 간본, 고지도, 한적 등 특별문고실 자료(대정 천황 즉위 때 도쿄에 하사한 10만 엔으로 수집한 도쿄자료, 2차 세계대전 중 도쿄 민간학자 및 장서가로부터의 전시(戰時) 특별매입도서, 기탁·기증도서) • 도시·도쿄의 기억(Tokyo Archive): 도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도쿄 관련 자료, 명치기에 도쿄부 및 도쿄시에서 발행한 도쿄 관련 자료 |
| | | 교토부립(京都府立)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토에 관한 것: 부립 교토학·歴史館(Library and Archives) 소장의 고문서, 행정문서, 고전을 제외한 시관자료(도서 및 문서 각 39만 점, 현물자료 5만 점) • 교토와 밀접한 인물, 단체 또는 교토를 주제로 기술한 자료·관광 가이드북 • 상기 기준에 부합하는 시리즈물 등 일반도서(교토 관계 자료는 복본 구입) |
| | | 홋카이도도립(北海道立)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방자료실 설치(2020년 도서관 부지 내의 북해도립공문서관으로 이전) • 북방자료: 북해도 및 사할린(樺太)·쿠릴(千島) 등 북방지역에 관한 도서, 연속간행물, 시정각, 사진, 소책자, 정치화상자료, 지도, 행정자료 등 수집 |
| | | 가나가와현립(神奈川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스트셀러(근대 일본의 베스트셀러, 근년은 연간 상위 20위까지) 수집 • 보덕사상(報德思想) 관계 도서: 니노미야(二宮尊徳) 중심의 관계 도서 • 전국 도도부현·시정촌이 편집·간행한 사료 • 도서관·도서관학 관계 자료 |
| | 대만 | 타이베이시립(臺北市立)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고서, 아시아개발은행(ADB)자료, 정부간행물, 공공도서관 공유 디지털 자료 |
| 가오슝시립(高雄市立)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특성, 대중 또는 민간단체 건의, 장서 분산보존 등을 기준으로 59개 분관 중 57개관의 특화장서 구축 • 예: 高雄文學館: 高雄作家, 旗山分館: 地方文獻·建築景觀, 橋頭分館: 地方鄉土文化·臺灣民主發展, 鹽埕分館·澄觀分館: 漫畫, 翠屏分館: 飲食文化, 大樹三館: 農業, 梓官分館: 海洋文學 등 | |
| 국내 | 수도권 | 서울 | X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와 각 자치구, 기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발행자료, 국내외에서 발간된 서울시 관련 자료 |
| | | 인천미추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소재 기업체·단체 간행자료, 인천 출신이거나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자료 등), 인천학 자료 등 |
| | 충청호남권 | 충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학 자료, 충남 및 시군에 관한 충청학 자료, 도내 발간자료 등 |
| | | 광주시립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전남·전북지역의 역사(시·군지), 문화, 건설, 지도, 관광, 문화재, 지역 축제 등 지역 향토자료(무등도서관): 시문학 자료(사직도서관): 미술자료(산수도서관) |
| | 영남권 | 대구시립중앙 | X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옥재 고서(대구·경북 역사 및 향토 자료, 대구·경북 출신 작가 문집 등) 및 국제정보센터 외국도서(양서, 일서, 중국서, 다문화도서) |
| | | 경북 | X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관련 역사·문화·사회·경제·인물 자료 |
| | | 부산 | X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학 자료(부산의 현재와 역사에 대한 자료, 부산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료, 타지역·국외에서 발간된 부산시 관련 자료, 외국 거주 부산 출신 작가 작품 등) |
| 울산 | X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시와 각 자치구, 기타 울산시 소재 공공기관 발행자료, 국내외에서 발간된 울산시 관련 자료 | | |

지역대표도서관은 장서개발지침과 관련 규정 등에서 특수자료 내지 특화장서를 명시하고 있으나, 행정자료·지역학 및 역사문화자료로 한정되어 있고 내용도 매우 피상적이고 부족하다.

3. 경북도서관 특화장서 인식도 분석 및 개발 방안

3.1 도서관 직원의 인식도 조사분석

3.1.1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첫째, 조사대상 도서관은 2020년 1월 기준 경북지역 23개 시군의 66개 공공도서관(지자체 38개, 교육청 28개)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p. 9).

둘째, 조사대상자는 66개 공공도서관 직원 총 491명이다. 그 중 경북도서관 직원은 전수(18명) 조사하고, 나머지 65개 공공도서관은 사서직 264명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셋째, 자료수집은 우편설문과 온라인 설문을 병행하였다. 설문지는 <표 2>와 같이 2개 영역,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설문기간의 경우, 경북도서관 직원은 약 6일간(2020.9.18.~9.23.), 23개 시군 공공도서관 사서는 약 7일간(2020.9.23.~9.29.)이었다.

다섯째, 설문지 배포 및 회수의 경우, 경북도서관 직원은 우편으로 총 17부(94.4%)를 회수하였고, 23개 시군 공공도서관 사서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온라인 설문방법(KSDC DB)으로 총 134부(50.8%)를 회수하였다. 시군별 응답사서의 운영주체별 비율은 교육청이 62.7%(84명), 지방자치단체가 37.3%(50명)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모두 유효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3.1.2 조사결과 분석

총 13개 설문문항 중에서 경북도서관의 특화장서 개발과 관련이 있는 문항을 중심으로 전체 인식도, 집단별 인식도 순위 차이와 배경을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적 정체성과 역할

먼저 경북도서관의 기본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는 <표 4>처럼 '경북 대표도서관, 정책도서관, 지원협력센터, 공동보존서고, 안동·예천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집단별로 비교하면 경북도서관 직원은 '경북 대표도서관'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82.4%로 절대적인데 비해 경북 공공도서관 사서는 31.2%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극명한

<표 2> 설문지 구성영역 및 문항

| 구분 | 영역 | 설문문항 | 문항수 | 계 |
|----|---------------|---|-----|----|
| I | 인구통계적 특성 | 성별, 근무경력, 직급, 소속 도서관 운영주체 | 4 | 13 |
| II | 경북도서관에 대한 인식도 | 정체성, 역할, 중점 업무, 업무 중요성, 주력 서비스, 인지도 향상 방안, 특화장서 대상자료, 공동보존서고 이관자료, 대표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역할 비중 | 9 | |

〈표 3〉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 구분 | | 경북도서관(n=17) | 경북 공공도서관(n=134) | 소계(%) |
|----------|--------|-------------|-----------------|----------|
| 성별 | 남자 | 7(41.2) | 49(36.6) | 56(37.1) |
| | 여자 | 10(58.8) | 85(63.4) | 95(62.9) |
| 근무 경력 | 5년 미만 | 4(23.5) | 33(24.6) | 37(24.5) |
| | 5-10년 | 2(1.8) | 16(11.9) | 18(11.9) |
| | 11-15년 | 2(11.8) | 24(17.9) | 26(17.2) |
| | 16-20년 | 6(35.3) | 27(20.1) | 33(21.9) |
| | 21-25년 | 0(0.0) | 10(7.5) | 10(6.6) |
| | 26-30년 | 3(7.6) | 16(11.9) | 19(12.6) |
| 직급 | 5급 | 3(17.6) | 9(6.7) | 12(8.0) |
| | 6급 | 5(29.4) | 39(29.1) | 44(29.1) |
| | 7급 | 3(17.6) | 45(33.6) | 48(31.8) |
| | 8급 | 1(5.9) | 31(23.1) | 32(21.2) |
| | 9급 | 2(11.8) | 10(7.5) | 12(7.9) |
| | 무응답 | 3(17.6) | - | 3(2.0) |

〈표 4〉 경북도서관의 기본적 정체성과 역할(복수응답)

| 구분 | 정체성 | | 소계 | 역할 | | 소계 |
|-----------------------|-------------|----------------|------------|-------------|----------------|------------|
| | 경북도서관 직원 | 경북 공공도서관 사서 | | 경북도서관 직원 | 경북 공공도서관 사서 | |
| 경북 대표 공공도서관 | 82.4(14) | 31.2(119) | 33.4(133) | 82.4(14) | 30.0(101) | 32.6(115) |
| 경북 공공도서관을 위한 정책도서관 | 5.9(1) | 24.1(92) | 23.4(93) | 11.8(2) | 27.1(91) | 26.3(93) |
| 경북 공공도서관 지원협력센터 | 5.9(1) | 22.6(86) | 21.9(87) | - | 25.6(86) | 24.4(86) |
| 경북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 5.9(1) | 11.3(43) | 11.1(44) | 5.9(1) | 7.7(26) | 7.6(27) |
| 안동·예천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 - | 10.8(41) | 10.3(41) | - | 9.6(32) | 9.1(32) |
| 계 | 100.0(17) | 100.0(381) | 100.0(398) | 100.0(17) | 100.0(336) | 100.0(353) |

인식 차이는 2019년 개관한 경북도서관의 짧은 역사성, 도내 공공도서관을 위한 리더십 부족,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부실,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부재, 법정 대표도서관인 경북도서관에 대한 공공도서관 사서의 몰이해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경북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는 '경북 대표도서관, 정책도서관, 지원협력센터, 안동·예천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별 인식차이가 매우 크다. 경북도서관 직원의 경우, '경북 대표도서관'이 82.5%로 절대적인 반면에 '지원협력센터와 안동·예천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응답하지 않았는데, 자기부정이자 법정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 경북 공공도서관 사서의 경우, '경북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응답비율이 32.6%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이유는 기본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공동보존서고가 안동·예천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보다 낮은 이유는 저마다 보존공간이 부족하지 않거나 장서를 이관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2) 법정업무의 중요성과 중점 추진업무

먼저 경북도서관이 「도서관법」 제23조 각호에 규정된 법정업무와 기타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표 5>와 같이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보존·제공, 각종 도서관 지원·협력사업 수행,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협력사업 등 지원,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사서직 교육·훈련 주관, 공공도서관 이관자료 보존,

지역문화기관(박물관, 문화원 등)과 협력 강화, 통합대출시스템 구축·운영'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집단별 순위는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경북도서관이 중점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한 인식도는 모두 '각종 도서관 지원·협력사업 수행'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정책도서관, 지원협력센터 등 도내 공공도서관을 위한 울타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나머지 7개 업무에 대한 인식도는 집단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경북도서관 직원은 '종합적인 도서관자료 수집·보존·제공,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협력사업 등 지원, 지역문화기관과 협력 강화 및 통합대출시스템 구축·운영, 사서직 교육·훈련 주관'의 순으로 중시한 반면에 경북 공공도서관 사서는 '종합적인 도서관자료 수집·보존·제공, 사서직 교육·훈련 주관,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공공도서관 이관자료 보존, 통합대출시스템 구축·운영'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각각의 입

<표 5> 경북도서관 법정업무의 중요성 및 중점 추진업무 순위(복수응답)

| 구분 | 법정업무의 중요성 (5점 척도) | |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 | |
|---------------------------|----------------------|----------------|----------------------------|---------------------------|
| | 경북도서관 직원 | 경북 공공도서관 사서 | 경북도서관 직원 (1-3순위 가중치 합*) | 경북 공공도서관 사서 (n=544, %) |
| 종합적인 도서관자료 수집·보존·제공 | 4.35 | 4.31 | 30 | 16.1 |
| 각종 도서관 지원·협력사업 수행 | 4.29 | 3.79 | 43 | 21.1 |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협력사업 등 지원 | 3.94 | 3.69 | 8 | 9.4 |
|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 3.88 | 3.68 | 3 | 10.7 |
| 사서직 교육·훈련 주관 | 3.76 | 3.68 | 5 | 13.6 |
| 공공도서관 이관자료 보존 | 3.65 | 3.63 | 2 | 10.5 |
| 지역문화기관(박물관, 문화원 등)과 협력 강화 | 3.65 | 3.62 | 6 | 8.1 |
| 통합대출시스템 구축·운영 | 3.59 | 3.55 | 6 | 10.5 |

* 가중치는 1순위에 3, 2순위에 2, 3순위에 1을 부여하고 각각의 응답 빈도를 곱하여 합산한 결과임.

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경북도서관은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협력사업 등 지원'을 중시한 반면에 경북 공공도서관 사서는 '사서직 교육·훈련, 도서관 조사·연구, 이관자료 보존, 통합대출시스템' 등 현실적 문제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대표도서관 역할의 비중

경북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2조 제1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2019년 11월에 개관한 경북 대표도서관인 동시에 「도서관법」 제27조 제1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등에 따른 예천·안동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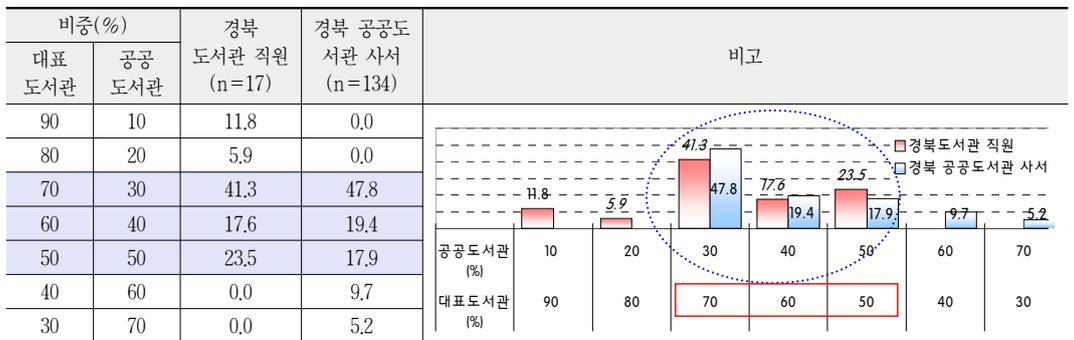
이러한 이중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북도서관이 앞으로 '대표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역할 비중을 어떻게 설정·운영해야 하는지에 대

한 인식도는 <표 6> 처럼 '70% : 30%'가 각각 절반에 근접할 정도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 순위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를 보면 경북도서관 직원은 '50% : 50%'와 '60% : 40%'인 반면에 경북 공공도서관 사서는 '60% : 40%'와 '50% : 50%'로 나타났다. 요컨대 경북도서관이 대표도서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비율이 경북도서관 사서는 76.6%, 경북 공공도서관 사서는 67.2%로 각각 절반을 상회하였다. 따라서 경북도서관은 도내 공공도서관을 위한 대표도서관에 무게중심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

4) 인지도 제고방안

전국 지역대표도서관 중 후발주자에 속하는 경북도서관의 인지도 제고방안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는 <표 7>과 같다. 경북도서관 직원은 '다양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경북 특화자료 수집·보존·제공, 주기적 기획공연·전시회, 전자자료 온라인서비스 확대, SNS를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 등의 순으로 인식한 반면에 경북 공공도서관 사서는 '경북 특화자료 수집·보존·제공, 다양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SNS를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 마스크 등을 통한 홍보

<표 6> 경북도서관의 바람직한 역할 비중



〈표 7〉 경북도서관의 인지도 제고방안(복수응답)

| 구분 | 경북 도서관 직원 (1-3순위 가중치 합) | 경북 공공도 서관 사서 (n=406, %) | 비고 |
|------------------|----------------------------------|-------------------------------|----|
| 경북 특화자료 수집·보존·제공 | 23 | 21.5 | |
| 다양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 43 | 17.6 | |
| 주기적 기획공연·전시회 | 14 | 11.3 | |
| 전자자료 온라인서비스 확대 | 12 | 9.7 | |
| SNS를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 | 4 | 15.5 | |
| 메스컴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3 | 12.9 | |
| 공간·시설 대여서비스 확대 | 3 | 7.0 | |
| 홈페이지 충실화 | 0 | 4.6 | |

강화' 등의 순으로 인식하였다. 1-2순위에서 집 단별 인식 차이가 있음에도 '경북 특화자료 수 집·보존·제공'은 대외적 인지도 제고에 매우 유용한 방안으로 지목하고 있다.

5) 특화장서 개발을 위한 대상자료

경북도서관의 인지도 제고에 유력한 방안으 로 제시된 '경북 특화장서 개발·구축'은 중요

하고 시급하다. 어떤 자료를 대상으로 개발해 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8〉 처럼 '경북 문화유산 자료(유네스코, 국가· 경북 문화재 등)'가 1순위였다. 그 다음 순위는 응답집단에 따라 달랐다. 경북도서관 직원은 '경북학 연구자료, 유교문화자료(안동 중심의 서원, 향교 등), 경북 역사생태자료, 종가· 종택문화자료'의 순인 반면에 경북 공공도서관

〈표 8〉 경북도서관 특화장서 개발을 위한 대상자료(복수응답)

| 구분 | 경북도서관 직원 (1-3순위 가중치 합) | 경북 공공도서관 사서 (n=607, 응답 %) | 비고 |
|------------|------------------------------|---------------------------------|----|
| 경북 문화유산자료 | 39 | 20.8 | |
| 경북학 연구자료 | 26 | 14.5 | |
| 유교문화자료 | 17 | 11.7 | |
| 종가·종택문화자료 | 6 | 7.6 | |
| 경북 역사생태자료 | 6 | 16.1 | |
| 종가·종택 문화자료 | 6 | 7.6 | |
| 향일·독립운동자료 | 5 | 9.6 | |
| 신라 불교자료 | 3 | 7.7 | |
| 세마울운동 기록물 | 0 | 5.8 | |
| 가야문화권 자료 | 0 | 6.3 | |

사서는 '경북 역사생태자료, 경북학 연구자료, 유교문화자료, 항일·독립운동자료'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경북도서관은 '도내 문화유산, 경북학 연구, 유교문화, 역사생태, 종가·종택문화, 항일·독립운동' 등에 관한 하이브리드 장서를 개발·구축하여 옹도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다른 시도의 대표도서관과 차별화하여 존재이유와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3.2 경북의 정체성 및 문화유산 분석

3.2.1 경북의 정체성과 4대 정신

도처에서 회자되는 정체성(identity)은 라틴어 'idem'(같다, 동일하다)에서 유래하였다. 이 용어는 심리학자 프로이트(S. Freud)가 처음 사용하였고, 신프로이트학과를 대표하던 발달심리학 및 정신분석학자 에릭슨(E.H. Erikson)이 학문적 공간에 도입한 이래로 논의되어 왔다. 직역하면 '동일성'이지만, 1959년 에릭슨은 개성(personality)의 일관성 내지 독자성 등을 표현하기 위한 2개 감각, 즉 자기의 동일성과 연속적이라는 감각과 자기(또는 자기의 동일성)가 사회적으로 인정된다는 감각의 상태를 심리적으로 묘사하는데 정체성을 차용하였다

(小此木 啓吾, 1973, p. 10).

그럼에도 정체성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다. 사전적 개념은 '어떤 대상의 본질을 규정하는 성질, 어떤 존재의 본질적 특성, 역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고유한 실체' 등이다. 철학적 함의는 '어떤 개체가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상위함에도 불변하는 동일성과 지속성'이다. 따라서 정의와 함의에 내재된 키워드는 '본질적'(essential)이며, 고정불변의 특성이다. 개인이나 집단(또는 조직)을 불문하고 정체성을 주장하거나 규정할 때는 태생적 특성, 본질적 이미지와 역할, 역사적 가치, 동일성, 고정불변의 지속성 등이 함축되어 있다(윤희운, 2020, p. 31).

이러한 정체성 형성의 기저에 경북정신이 있다. 2014년 대구경북연구원이 경상북도에 제출한 '경북정체성 강화 전략구상' 보고서에서 23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 2천 명을 대상으로 '경북정신' 표출에 적합한 메시지를 조사한 결과, <표 9>와 같이 '한국정신의 창'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대구경북연구원, 2014, p. 76). 따라서 경북의 정체성은 경북의 지역 및 사람에 의해 형성되고 확립된 역사·문화적 고유성과 공동체적 특성인 경북정신이다. 그 속에는 다른 시도와 차별화되는 다음의 4대 정신이 집적되어 있다.

<표 9> '경북정신' 표출에 적합한 메시지

| 구분 | 응답률(%) | 응답자수 | 비고 |
|---------|--------|------|----|
| 창의정신 | 17.0 | 339 | |
| 한국정신의 창 | 34.1 | 681 | |
| 뿌리정신 | 26.1 | 521 | |
| 선구자 정신 | 8.7 | 174 | |
| 길잡이 정신 | 13.8 | 275 | |
| 무응답 | 0.5 | 10 | |

- ① 화랑정신: 고대 삼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신라왕조 수도 경주를 중심으로 사행(孝·悌·忠·信)과 삼미(검손·검소·검허)의 도량 및 실천, 고구려·백제 출신의 포용, 서역·아랍인 등과의 교류, 고도 경주의 국제적 개방 등
- ② 선비정신: 고려 문신정권 이후 경상도를 기반으로 등장한 유학자(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야은 길재 등)의 추상같은 기개와 올곧은 절의, 신흥 사대부 계층이 채택한 학문인 성리학 태동, 선비정신의 원류인 영남사림파(회재 이언적, 퇴계 이황, 서애 유성룡, 학봉 김성일 등)와 유림 본산, 유가적(儒家的) 휴머니즘 실현, 유교 문화 원형을 간직한 메카 등
- ③ 호국정신: 화랑 및 선비정신을 계승한 일제 하 독립운동, 한국 동란기 조국사랑 등의 독립투쟁 발상지로 2020년 말 기준 시도 중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2,219명)를 배출하였고, 특히 1919년 파리강화회의 때 한국독립 서한을 보낸 파리장서운동에 서명한 137명 중 43.8%(60명)가 경북 출신 일 만큼 충만한 주인의식, 자기희생, 조국사랑 등
- ④ 새마을정신: '경북이 가면 길이 된다'는 시냇말처럼 근대화·산업화 초석을 놓았고 의식계몽과 경제발전의 근간이었으며 아프리카, 동남아 등 개도국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무형 국가자산이 된 창조적 리더십, 개척정신, 자신감, 긍정적 사고, 공동체 의식 등

요컨대 경북의 4대 정신은 한국정신의 뿌리

이자 창이며 문화유산의 현장이다. 2006년 7월 4일 안동시는 특허청에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는 브랜드를 등록하고 선포하였다. 이러한 4대 정신이 숨 쉬는 지역과 역사적 공간이 경북의 문화권과 문화유산이다.

3.2.2 경북의 3대 문화권과 문화유산

경북의 문화권에는 고대 삼국통일의 화랑정신, 중세 기개와 강직의 선비정신, 근대 국난극복과 애국애족의 호국정신, 그리고 현대화 초석인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의 흔적과 기억이 집적되어 있다. 경북의 정신이자 문화유산이며 한국 역사의 일부다.

그 가시적 흔적과 내장된 기억인 유무형 문화재는 <표 10>에서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다(문화재청, 2019). 문화자본 및 관광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경북의 문화유산적 특성을 <그림 1>과 같이 3대 문화권으로 대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경북 3대 문화권 지도

〈표 10〉 시도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2019년 말 기준)

| 시도 | 국가지정문화재 | | | | | | | | 국가 등록문화재 |
|----|---------|-------|-----|-----|-------|---------|---------|-------|-------------|
| | 국보 | 보물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국가무형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 소계 | |
| 서울 | 166 | 712 | 68 | 3 | 11 | 29 | 41 | 1,242 | 212 |
| 부산 | 5 | 51 | 6 | 2 | 7 | 5 | 2 | 98 | 20 |
| 대구 | 3 | 77 | 9 | 0 | 2 | 0 | 6 | 108 | 11 |
| 인천 | 1 | 29 | 18 | 1 | 13 | 5 | 0 | 75 | 8 |
| 광주 | 2 | 15 | 2 | 1 | 2 | 1 | 3 | 45 | 19 |
| 대전 | 2 | 13 | 1 | 0 | 1 | 0 | 2 | 40 | 21 |
| 울산 | 2 | 8 | 5 | 0 | 3 | 0 | 2 | 26 | 6 |
| 세종 | 0 | 2 | 0 | 0 | 1 | 0 | 1 | 5 | 1 |
| 경기 | 12 | 165 | 69 | 4 | 20 | 10 | 22 | 387 | 85 |
| 강원 | 11 | 82 | 19 | 25 | 44 | 3 | 11 | 239 | 44 |
| 충북 | 12 | 94 | 19 | 10 | 23 | 4 | 21 | 212 | 29 |
| 충남 | 29 | 131 | 50 | 3 | 17 | 4 | 24 | 319 | 61 |
| 전북 | 8 | 99 | 41 | 7 | 32 | 9 | 14 | 296 | 86 |
| 전남 | 21 | 187 | 45 | 21 | 60 | 14 | 38 | 498 | 112 |
| 경북 | 55 | 350 | 101 | 15 | 68 | 11 | 93 | 753 | 60 |
| 경남 | 13 | 165 | 53 | 12 | 44 | 14 | 12 | 357 | 44 |
| 제주 | 0 | 8 | 7 | 9 | 49 | 4 | 8 | 109 | 24 |
| 기타 | 0 | 0 | - | 0 | 64 | 33 | 0 | 97 | - |
| 계 | 342 | 2,188 | 513 | 113 | 461 | 146 | 300 | 4,906 | 843 |

① 안동·영주 중심의 유교문화권: 안동은 선비와 양반의 고장이자 대한민국 추로지향(鄒魯之鄉)으로 회자되며 영주 등과 함께 영남유림 총본산이자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도시다. 국가지정문화재(99개, 국보 5개, 보물 42개, 무형문화재 3개, 사적 기념물 2개, 명승 2개, 민속문화재 34개)를 비롯하여 도지정문화재가 229개에 달하며, 불교문화 및 왕가문화가 일부 있지만 조선조 양반·선비의 유교문화와 민중의 민속문화가 공존한다. 대표적인 유적은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봉정사, 세계기록유산인 한국국학진흥원 유교책판과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도산

서원과 병산서원을 비롯하여 영주 소수서원과 부석사, 안동 석빙고, 예안향교, 농암사당, 종택·종가문화, 무형문화재인 하회탈, 하회별신굿, 안동포 짜기 등이다.

② 경주 중심의 신라문화권: 고도 경주는 2000년 12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역사유적지구로 총 5개 지구(왕궁터 월성지구, 대릉원지구, 불교 사찰 유적지인 황룡사지구와 남산지구, 왕경 방어시설이 위치한 산성지구)로 나누어지며, 전국 유형문화재 중 국보 10.2%(32개), 보물 4.6%(75개), 기념물 사적 15.1%(74개)를 보유할 정도로 문화유산이 즐비한 길 위의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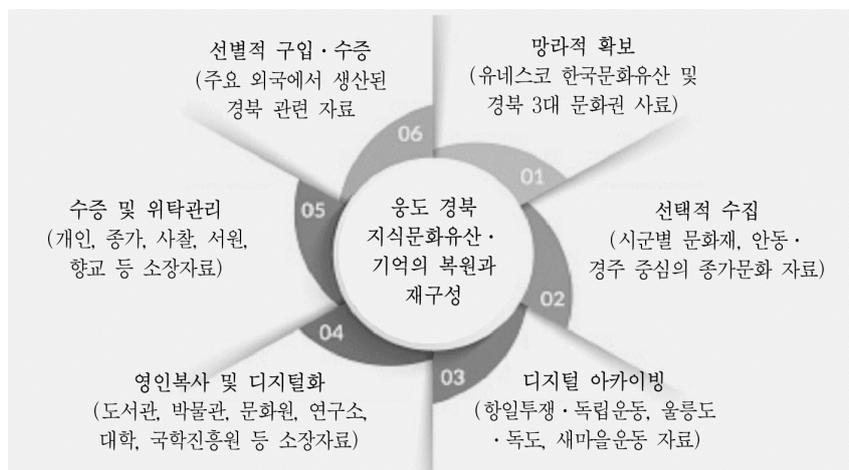
물관이다. 이를 대표하는 문화유적이 신라왕조 대릉원(미추왕릉을 비롯한 고분 23기, 천마총), 고대 건조물(첨성대, 석빙고, 동궁과 월지, 포석정, 계림, 서출지, 성덕대왕신종, 문무대왕수증릉, 김유신장군묘 등), 불교 문화유적(분황사, 석굴암, 불국사, 기림사, 백률사, 황룡사지와 감은사지, 남산의 마애불·미륵불·석탑, 이차돈 순교비, 포항 보경사), 안강 옥산서원과 양동마을 등이다.

- ③ 고령·성주의 가야문화권: 경북 고령(大伽倻)과 성주(星山伽倻), 상주(古寧伽倻)는 경남 김해(金官伽倻), 함안(阿耶伽耶), 고성(小伽倻)과 함께 낙동강 연안을 따라 700리 6가야를 형성한 고대 왕국의 도시다. 특히 고령과 성주는 대가야 왕국 520년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고령 지산동고분군, 마고산성, 고령향교, 지산리 당간지주, 장기리 암각화, 고인돌과 선돌, 증가(吳漑, 金宗) 고문서,

적개공신(敵愾功臣) 교서, 성주 성산동 고분군과 백운산성, 상주 전고령가야왕릉, 봉황산성, 덕봉토성, 병풍산고분군 등이 대표적이다.

3.3 경북도서관 특화장서 개발·구축 모형

도서관이란 명칭과 본질이 통시적 자료의 누적과 체계적 보존에서 발원한다면, 경북도서관의 대외적 위상과 브랜드는 경북 정체성 및 문화유산을 결합한 특화장서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환언하면 특화장서 개발과 구축은 '경북의 지식문화유산 보존, 하이브리드 지식정보서비스, 디지털 게이트웨이 기능'을 강화하는 요체일 뿐만 아니라 지식문화 랜드마크화에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특화장서 브랜드는 '경북지식문화유산'으로 명명하고, 중장기 전략적 모형은 <그림 2>와 같이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의 배경과 논거,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경북도서관 특화장서 '경북지식문화유산' 개발 전략

첫째, 경북도서관의 특화장서 브랜드를 '경북지식문화유산'으로 명명한 이유는 문화유산 측면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가지정 문화재, 유교·신라·가야 문화유적 등이 풍부하고, 역사적 관점에서 항일·독립운동 본거지이자 중가문화 고향이며, 공동체 삶의 측면에서 씨족마을을 대표하는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이 있고, 농촌발전과 의식개혁 측면에서 청도·포항은 새마을운동 발상지이며, 역사지리 및 국제법상 중요한 울릉도와 독도를 배후로 하고 있어 다른 시도의 추종을 불허하는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북도서관은 응도 전역에 산재하는 고대 문화유산, 근대 독립운동, 현대 새마을운동, 선비정신과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독도 등을 기술한 자료를 발굴·집대성하여 보존과 이용, 프로그래밍, 건축과 전시, 관광재 유치 등에 기여할 때 특화형 지식문화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지호관(知好館)으로 각인될 수 있다.

셋째, 경북도서관이 특화장서로 개발할 문화유산자료의 모집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한 문화재(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에 속하는 경북의 문화유산에 관한 기억과 기록이다.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 ② 무형문화재: 수 세대에 전승된 무형 문화

유산 중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 ③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경치가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동식물 서식지·자생지·번식지·도래지, 지형, 지질, 동굴, 생물학적 또는 자연적 현상으로서 역사·경관·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
- ④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 변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

넷째, 경북도서관이 특화장서로 개발해야 할 모집단 중에서 특히 주력해야 할 주제별 및 토픽별 범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유네스코 한국문화유산 및 경북의 세계유산 자료: 한국문화유산은 단행본, 보고서, 사진, 영상자료 등, 경북의 세계문화유산자료는 세계유산(경주역사유적지구, 석굴암과 불국사,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 도산서원, 병산서원, 옥산서원), 기록문화유산(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새마을운동 기록물, 한국의 유교책판), 씨족마을(안동 하회, 경주 양동) 등의 사료, 고문헌 보고서, 사진, 영상자료, 국내의 언론사 프로그램 등

- ② 안동·경주 중심의 중가문화 자료: 전국 923개 중가 중 33.8%(312개)가 대구·경북에 분포하고 있는데, 경북의 대표적인 종택은 점필재 김종직(金宗直), 농암 이현보(李賢輔), 충재 권벌(權穰), 회재 이언적, 퇴계 이황, 소재 노수신(盧守愼), 학봉 김성일, 서애 류성룡, 한강 정구(鄭述), 여헌 장현관(張顯光) 등이며, 집성촌 형태는 서애 류성룡 후손의 안동 하회마을, 회재 이언적과 송재 손소(孫昭) 후손의 경주 양동마을, 한강 정구(鄭述) 후손의 성주 갖말, 월봉 이정현(李廷賢) 후손의 한개마을인데 사당과 종택, 불천위 묘소를 관리하는 재사(齋舍), 문중 청소년을 교육하는 서당(書堂), 휴식이나 회합을 위한 정자(亭子), 문중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 서원(書院), 음식문화 등이 집합된 공동체 문화에 대한 포럼, 사진, 문장·인장 디자인, 다큐멘터리, 책자 및 영상물 등
- ③ 안동의 항일투쟁 및 독립운동 자료: 안동은 다른 지역보다 포상 독립운동가가 10배나 많은 357명에 달하며 미포상자를 합하면 1,000여명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고장으로서 퇴계 이황의 학덕을 수계하여 사익보다 대의를 추구한 일제 항일투쟁 및 독립운동가 겸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역임한 석주 이상룡(李相龍), 조선민립대학기성회 중앙집행위원과 신간회 안동지회장 등을 지낸 동산 유인식(柳寅植), 만주 항일운동 주축이던 일송 김동삼(金東三), 아나키스트 유림이자 의열단원이던 하구 김시현(金始顯)과 추강 김지섭(金祉燮), 저항시인 이육사(李陸史), 사회주의 계열의 김재봉(金在鳳)과 권오설(權五高) 등의 유품, 문서, 연구보고서, 단행본, 신문자료 등
- ④ 시군별 주요 문화재 및 보고서 자료: 문화재 자료는 항일 독립운동 성지인 안동 임청각(臨淸閣),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인 경주 최부자집, 중단개혁과 치열한 정진을 결사한 문경 봉암사, 김천 직지사, 영천 은혜사,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인각사, 울진 불영사, 청도 운문사, 봉화 청량사 등의 사찰, 탑, 불상, 탕화, 사립 고등교육기관 서원과 국립 지방교육기관 향교의 역사기록물 등, 보고서 자료(답사, 탐방, 지표조사, 자원조사, 발굴, 복원, 보존상태, 보존처리, 연구, 평가, 지정 등)의 원본, 영인본, 디지털 파일 등
- ⑤ 새마을운동 자료: 조국 근대화 및 산업화 토대가 된 새마을운동과 관련 마크, 깃발, 문건·물건, 구술·녹취자료, 악보·영상, 개발도상국 등 103여개국에 벤치마킹한 자료
- ⑥ 울릉도·독도 관련 자료: 고지도, 단행본, 연구보고서, 학술대회자료, 관보, 서한, 각서, 한일 분쟁자료, 사진, 언론자료, 지연지리 및 생태자료, 관광자료 등
- ⑦ 경북의 주요 명승지와 관광명소 자료: 국립공원 주왕산과 소백산, 조선조 건축물인 구미의 채미정(採薇亭)과 금오산성, 문경세계, 울진 금강송길, 낙동강 뱃길, 예천 석송령(石松靈), 상주 공검지(恭儉池), 청송 주산지(注山池)와 송소고택

(松韶古宅), 의성 금성면 조문국(召文國)의 고분군 등

- ⑧ 주요 외국자료: 해외에서 생산된 경북지역 및 3대 문화권과 관련된 도서,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언론기사, 사진집, 도록 등
- ⑨ 경북 문화유산 관련 디지털자료: 문화재청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행정안전부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PRISM), KISTI의 NTIS, 한국연구재단 보고서, 경북문화재단, 대학별 영남문화원(연구소), 지역별 문화원 등 법인체가 생산한 디지털 자료

다섯째, 경북도서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특화장서 개발의 기본노선은 원본 중심주의 및 연구집서 수준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네스코 한국문화유산 및 경북 3대 문화권 사료의 망라적 확보, 시군별 주요 문화재 및 안동·경주 중심의 중가문화 자료의 선택적 수집,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탑재된 항일투쟁과 독립운동, 울릉도와 독도, 새마을운동 자료의 디지털 다운로드와 아카이빙, 다른 유관기관(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연구소, 국학진흥원, 대학 등) 소장자료의 영인복사 및 디지털화, 개인·민간기관(종가, 사찰, 서원, 향교 등) 자료의 수증 및 위탁관리, 주요 외국에서 생산된 경북 관련 자료의 선별적 구입과 수증 등 모든 전략과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화장서 개발을 통한 대외적 인식도를 확장하고, 종합적 지식정보센터로 자리매김하며, 지식문화유산 구심체로의 위상을 제고시키려면 단계적 접근과 긴 호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부족한 예산과 인력이 특화장서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매년 경북 지식문화유산과 관련된 자료수집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 특화장서 개발에 투입해야 한다.

- ② 경북도서관에 '경북지식문화유산실'을 설치하여 특화자료 수집과 보존, 디지털 아카이빙, 열람·이용, 전시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프로그램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 ③ 3대 문화권 대상의 특화장서 개발에는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북도서관의 지리적 위치를 감안하면 유교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의 순으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④ 특화자료 수집을 위한 표적기관은 도내 및 대구지역의 공공·대학도서관, 지식문화유산 보존기관, 도내 행정기관, 제3섹터, 대학과 연구기관, 종가·종택과 문중, 기타 시설(사찰, 서원, 향교 등)의 순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특화자료 개발 방법은 납본(제출) 수집, 수증, 구입, 디지털 아카이빙의 순으로 진행하면 무리가 없다. 경북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및 23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제출받을 법적 권한이 있다. 시군에 공문을 통해 인지 및 협조를 요청하고 가능하면 제3섹터까지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증을 통한 특화자료는 사전에 시군과의 협의를 전제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수집하고, 시중으로 유통되는 경북 지식문화유산 관련 최신 자료는 완전하게 구입한다. 여러 기관이나 시설

에 소장된 지식문화유산자료가 유일본일 때는 디지털 아카이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외 주요 공공도서관과 국내 지역대표도서관의 특화장서 개발사례, 경북도서관 특화장서 개발 등에 대한 도서관 직원의 인식도, 경북의 문화권 지형 및 문화유산을 조사·분석하여 경북도서관의 특화장서 개발과 전략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분석의 경우, 외국은 뉴욕공공도서관의 초상화 파일·Schlosser Collection·Spencer Collection, 버지니아주립도서관의 주 역사자료, 보스톤공공도서관의 미국연방출판물, 베를린주립도서관의 라라컬렉션(Rarasammlung), 퀸즐랜드주립도서관의 원주민 문화유산 자료, 도쿄도립도서관의 도쿄도 행정자료·특별문고·도시·도쿄의 기억, 교토부립도서관의 부립 교토학·歴彩館 자료, 홋카이도의 북방자료와 가나가와의 베스트셀러·보덕사상 도서, 타이베이의 특수장서(일본 고서, ADB 자료, 정부간행물), 가오슝시립도서관의 57개 분관 특화장서 등 역사·지리 및 자료의 특수성을 조합하였다. 국내는 인천 미추홀도서관의 인천학 자료, 충남도서관의 백제학·충청학 자료 및 도내 행정자료, 광주시립도서관의 광주·진남·전북지역의 향토·시문학·미술자료, 대구시립중앙도서관의 낙육재 고서, 부산도서관의 부산학 자료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대개

장서개발지침(안), 자료수집·관리규정 등에서 일반자료와 구별한 특수자료(고서, 귀중서, 향토자료, 장애인 대체자료 등)일 뿐 특화장서로 간주하기 어렵다.

둘째, 경북도서관 특화장서 개발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경북도서관 직원은 '경북학 연구자료, 유교문화자료, 경북 역사생태자료, 종가·종택문화자료'의 순인 반면에 경북 공공도서관 사서는 '경북 역사생태자료, 경북학 연구자료, 유교문화자료, 항일·독립운동자료'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경북도서관은 '도내 문화유산, 경북학 연구, 유교문화, 역사생태, 종가·종택문화, 항일·독립운동' 등에 관한 하이브리드 장서개발을 통해 옹도 대표도서관의 정체성 확립과 다른 시도의 대표도서관과 차별화되는 존재감 및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경북도서관의 특화장서 브랜드는 '경북지식문화유산'으로 명명하고, 개발할 모집단은 도내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설정하였다. 모집단 중 주력해야 할 주제별 및 토픽별 범주는 유네스코 한국문화유산 및 경북의 세계유산 자료, 안동·경주 중심의 종가문화 자료, 안동의 항일투쟁 및 독립운동 사료, 시군별 주요 문화재 및 보고서 자료, 새마을운동 자료, 울릉도·독도 관련 사료, 경북의 주요 명승지와 관광명소 자료, 해외에서 생산된 경북지역 및 3대 문화권 관련 자료, 경북 문화유산 디지털자료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특화장서 개발의 기본노선은 원본 중심주의 및 연구집서 수준을 제시하였다.

넷째, 경북도서관 특화장서 개발의 단계적 추진전략은 매년 지식문화유산자료 수집예산을 별도로 책정·투입하고, '경북지식문화유산

실'을 설치하여 자료수집·보존, 디지털 아카이빙, 열람·이용·전시 등을 집중 관리하면서 프로그램과 연계시키며, 3대 문화권 특화장서 개발은 유교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료수집을 위한 표적기관은 도내 및 대구의 공공·대학도서관, 지식문화유산 보존기관, 도내 행정기관, 제3섹터, 대학과 연구기관, 종가·종택과 문중, 기타 시설(사찰, 서원, 향교 등)의 순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발방법은 납본(제출) 수집,

수증, 구입, 디지털 아카이빙의 순으로 진행하되 기관·시설 소장자료가 유일본일 때는 디지털 아카이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019년 11월에 개관한 경북도서관은 당시 경북과 관련된 역사·문화·사회·경제·인물 자료를 우선 수집하여 경북의 옛 모습과 현재 생활상을 총망라한 자료의 허브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공언하였다. 허사가 아니길 바라며, 본 연구가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경북도서관 (2019). 경북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출처: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new.jsp?lawsNum=47000016014003&scType=title&scValue=경북도서관&isClose=0&kind=1
- 高雄市立圖書館 (2016). 館藏發展政策. 출처: <https://www.kssml.edu.tw/form/index.aspx?Parser=2,3,82,28>
-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 (2019). 장서개발지침. 내부자료.
- 노영희, 강정아 (2014).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5), 67-93. <http://dx.doi.org/10.16981/kliss.45.201412.67>
- 대구경북연구원 (2014). 경북 정체성 강화 전략구상.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 대구시립중앙도서관 (2019). 중장기 장서 개발 계획(2019-2023). 내부자료.
- 문화재청 (2019). 문화재일반. 출처: 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cultural_info/cultureTotal_ccrebase_kor.jsp&mn=NS_03_07_02
- 문화체육관광부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 세종: 동부.
- 박현주 (2012). 공공도서관 장서특성화 사례 연구: 인천 화도진도서관 향토개항문화자료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 학술발표회, 29-47.
- 반달림, 오동근 (2015).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자료 운영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 학술발표회, 171-181.
- 부산도서관 (2020). 부산도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출처: <https://www.elis.go.kr/newlai>

- 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26000031004020&isClose=0
- 서울도서관 (2017).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출처: <https://lib.seoul.go.kr/rwww/html/ko/guideInfo.jsp>
- 울산도서관 (2018). 울산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출처: <https://library.ulsan.go.kr/page/introduction/operationProvision.do>
- 윤희윤 (2020). 한국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대구: 태일사.
- 윤희윤, 김중애, 오선경 (2020). 대도시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분석과 제언. 정보관리학회지, 37(3), 51-75. <http://dx.doi.org/10.3743/KOSIM.2020.37.3.051>
-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2016). 장서개발정책(안). 내부자료.
- 장덕현 (2020). 공공도서관 지역특성화장서 구축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4), 333-349. <http://dx.doi.org/10.16981/kliss.51.4.202012.333>
- 충남도서관 (2018). 충남도서관 장서개발 지침(안). 내부자료.
- Boston Public Library (2013). Boston public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vailable: https://d4804zalf1gw.cloudfront.net/wp-content/uploads/sites/30/2017/01/30081802/collectiondev_policy.pdf
- Bottorff, Tim (2011). Try to be complete on something: Tips on building a highly specialized subject collection. Public Services Quarterly, 7(1-2), 94-98.
- New York Public Library (2021). Specialized Subject Collections. Available: <https://www.nypl.org/node/29600>
- Staatsbibliothek zu Berlin (2019). Grundsätze des Bestandsaufbaus. Available: <https://staatsbibliothek-berlin.de/sammlungen/erwerbungsprofil/>
- State Library of Queensland (2007).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South Brisbane: The Library. Available: <https://nla.gov.au/nla.obj-1203522873/view>
- The Library of Virginia (2007). Collection development and collection management guidelines. Available: <https://www.lva.virginia.gov/about/policies/colldev061107.pdf>
- 京都府立図書館 (2016). 京都府立図書館資料収集方針. Available: https://www.library.pref.kyoto.jp/?page_id=8775
- 中井えり子 (2015). 大學図書館と特殊コレクション: 名古屋大学の西洋古典籍特殊コレクション. カレントアウェアネス, 323, 8-10.
- 神奈川県立図書館 (2014). 神奈川県立図書館資料収集要綱. Available: <https://www.klnet.pref.kanagawa.jp/common/youkou20140401.pdf>
- 臺北市立圖書館 (2019). 館藏發展政策. Available: https://tpml.gov.taipei/News_Content.aspx?n=2F48EF4A3CE5E062&s=02262B67D4160831

東京都立図書館 (2009). 東京都立図書館資料収集方針. Available: <https://www.library.metro.tokyo.jp/guide/uploads/15a10a.pdf>

北海道立図書館 (2016). 北海道立図書館資料収集方針. Available: <https://www.library.pref.hokkaido.jp/mobile/web/about/qulnh000000001e1-att/qulnh000000001f0.pdf>

小此木 啓吾 譯 (1973). 自我同一性, 東京: 誠信書房.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Ban, Dal-Rim & Oh, Dong-Geun (2015).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special collection services in the public libraries, Daegu Metropolitan City.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Summer Academic Conference, 171-181.

Busan Library (2020). Regulations on collection and management.

Chang, D. H. (202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collection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4), 333-349.

<http://dx.doi.org/10.16981/kliss.51.4.202012.333>

Chungnam Library (2018). Collection development guideline(Internal document).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9). General cultural properties.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2014). Strategic initiative to strengthen gyeongbuk identity. Daegu: The Institute.

Daegu Metropolitan Jungang Library (2019). Mid to long term collection development plan (2019-2023). (Internal document).

Gwangju City Mudeung Library (2019). Collection development guideline(Internal document).

Gyeongbuk Prefectural Library (2019). Regulations on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gyeongbuk prefectural library.

Hokkaido Prefectural Library (2016). Material collection policy of hokkaido prefectural library.

Incheon Metropolitan City Michuhol Library (2016).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Proposal) Internal documents.

Kanagawa Prefectural Library (2014). Material collection guidelines of kanagawa prefectural library.

Kaohsiung City Library (2016).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kaohsiung city library.

Kyoto Prefectural Library (2016). Material collection policy of Kyoto prefectural librar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0). Overiewing cultural infrastructure. Sejong: the

Ministry.

- Noh, Younghee & Kang, Jung A (2014). A study on vitalization methods of local cultural contents in the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5), 67-93. <http://dx.doi.org/10.16981/kliss.45.201412.67>
- Park, Hyunju (2012). A case study on characterization of public library collection: Focusing on Incheon Hwadojin Library local opening culture museum.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Winter Academic Conference*, 29-47.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9). A study on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seoul public libraries. Seoul: Seoul Metropolitan Library.
- Taipei City Library (2019).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taipei city library.
- Tokyo Metropolitan Library (2019). Material collection policy of tokyo metropolitan library.
- Ulsan Library (2018). Regulations on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ulsan library.
- Yoon, Hee-Yoon (2020). Discourse and issue on Korean public libraries. Daegu: Taeil.
- Yoon, Hee-Yoon, Kim, Jong-Ae, & Oh, Seon-Kyung (2020). Analysis and implication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public libraries in major c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7(3), 51-75. <http://dx.doi.org/10.3743/KOSIM.2020.37.3.051>